

# 2024년도 수원대학교 40대 총학생회장단 선거 출마소견서

수원대학교 40대 총학생회장단 선거 동화 선거운동본부  
총학생회장단 정 후보자 전장수

안녕하십니까 수원대학교 학우 여러분, 제 40대 총학생회장단 선거 '동화' 선거운동본부 정 후보 전장수입니다.

학우들을 대표한다는 것은 자강스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항상 학우들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하여 과감하게 행동하겠습니다. '동화' 총학생회가 수원대학교의 변화와 발전의 시작점이 되겠습니다. 모든 변화와 발전에 있어서는 시작이 필요합니다. 정착되어온 문화에 있어 새로운 것을 도입하여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위험을 각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우들과 함께한다면 못 해낼 것은 없다고 자신합니다. 또한 학생 사회의 발전을 이룩고 학생 자치에 있어 선포를 쌓기 위해 행동하겠습니다. 준비한 공약에 그치지 않겠으며 학우들을 위한 것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이룩여 내겠습니다. 현재에 만족하지 않고 정해진 도약이 아닌 더 멀리, 더 높은 곳을 향해 도약하겠습니다.

약 12,000 명의 다양한 학우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행정정확학 학생회장으로서 약 300명의 학우들의 대표를 역임했었습니다. 1년의 시작을 알리는 신입생 학우들을 위한 OT와 캠퍼스 등극을 시작으로 크고 작은 기쁨과 배움을 드리기 위해 행사들을 기획하고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직책을 수행하며 대표자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본인 스스로에 대한 개인적 부족함 또한 느꼈습니다. 하지만 학우들과 의견을 주고받으며 잘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 자치 기구와 그 대표관 결국 학우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고 크게 외치며 실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또한 다양한 학우들의 대표들이 모여는 자리에서 더 나은 사회로의 발전적인 이야기를 나누며 학생 자치 기구의 일원으로써 자긍심을 느꼈습니다. 위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총학생회장이라는 직책을 수행하여 더욱 많은 학우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더 나은 학생 사회를 위하여 저 넓은 대학 생활을 후회 없이 버려겠습니다.

다이어몬드는 단단한 정도와 빛나는 것에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우들이 스스로 빛나며 단단한 내면을 지니고 사회 나가 본인의 가치를 뽐낼 수 있는 학교생활을 준비하고 실천하겠습니다. 가치 높은 학교생활을 만들기 위해 학우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변화를 가져오겠습니다. 또한 1년이라는 임기기간만을 생각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학생회가 학우들의 목소리를 듣고 행동하는 더 나은 학생 자치 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간절함을 잃지 않고 행동하겠습니다. 언제나 부족함이 있는 것을 인정하고 배움의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수원대학교 39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